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3. 10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시편 · 데살로니가후서 · 디모데전/후서 · 디도서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Contents

- 9 매일성경묵상 시편 75편 ~ 시편 79편
- 16 1과 가장 완전하신 재판장
- 24 매일성경묵상 시편 80편 ~ 시편 85편
- 32 2과 너희와 나
- 40 매일성경묵상 데살로니가후서 1장 ~ 데살로니가후서 3장
디모데전서 1장 ~ 디모데전서 3장
- 48 3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 56 매일성경묵상 디모데전서 4장 ~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후서 1장 ~ 디모데후서 3장
- 64 4과 너희 아버지는
- 72 매일성경묵상 디모데후서 4장
디도서 1장 ~ 디도서 3장
- 76 부록 아삭

10 *October 2013*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시편 75편	2 시편 76편
6	7 시편 80편	8 시편 81편	9 시편 82편
13	14 데살로니가후서 1장	15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 데살로니가후서 3장
20	21 디모데전서 4장	22 디모데전서 5장	23 디모데전서 6장
27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세례식	28 디모데후서 4장	29 디도서 1장	30 디도서 2장

11

Nov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시면 77면

4 시면 78면

5 시면 79면

10 시면 83면

11 시면 84면

12 시면 85면

17 디모데전서 1장

18 디모데전서 2장

19 디모데전서 3장

24 디모데후서 1장

25 디모데후서 2장
제3차 청지기훈련

26 디모데후서 3장

31 디도서 3장

교회 주요일정

10월 25일

제3차 청지기훈련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 · 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 ❶ 2013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❷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❸ 감동하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❺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❻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❼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❽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❾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❿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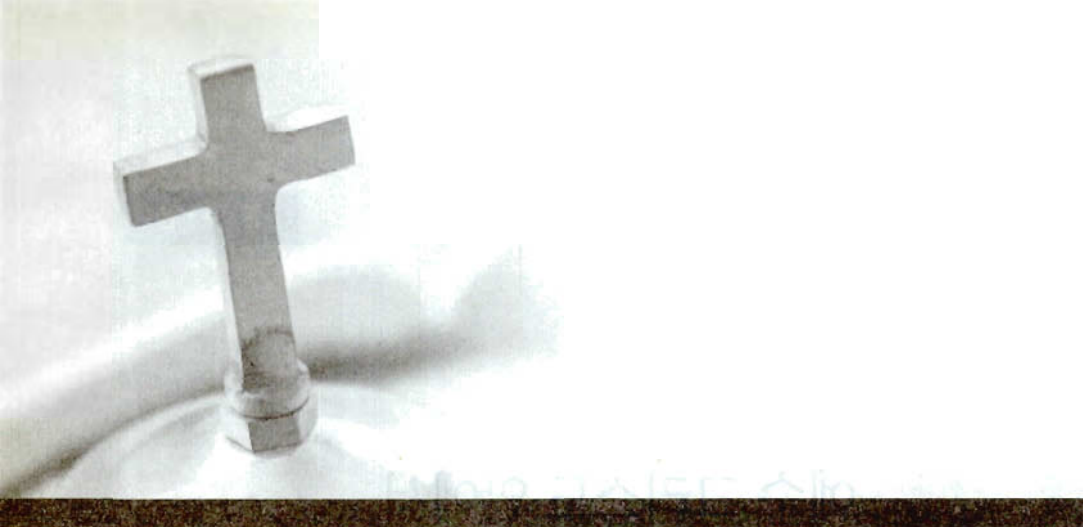
믿음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2013년 10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1

화요일

시편 75편

찬송가 304장

묵상노트

시인은 주의 이름이 가깝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에 감사합니다(1절). 그는 땅의 기둥을 세우시고 소멸시키시며,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 그들의 오만과 교만을 경고하신 주님께서 정한 시간에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 노래합니다(2~5절). 세상의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며, 악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6~8절). 그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인의 뿔을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겠다고 선포합니다(9~10절).

자신들의 힘만 믿고 과시하는 강대한 나라들의 위협 앞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의 나라들이 더 강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시인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자신의 위치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힘과 자랑은 유한하며 결국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요도 쇠락도 모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것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십니다. 높아졌다고 교만하거나 낮아졌다고 애통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현재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시 75:7)

But it is God who judges: He brings one down, he exalts another. (Ps. 75:7)

• 땅의 기둥(3절) : 이 세상
의 기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의
미이다.

기도제목

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

수요일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시편 76편
찬송가 322장

묵상노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셨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1~3절). 그는 주님께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셔서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장사들도 도움을 받을 손을 만날 수 없으며 주께서 꾸짖으실 때 병거와 말이 모두 깊이 잠들었다고 노래합니다(4~6절). 시인은 주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실 때에 한 번 노하시면 아무도 주의 눈앞에 설 수 없고 땅도 두려워 잠잠할 것이며 사람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7~10절). 그는 고관들의 기를 꺾으며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이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며 마땅히 경외할 분이신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권면합니다(11~12절).

시인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대적들 앞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찬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시온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며 예루살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으리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더 강한 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신의 힘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어떤 대적의 위협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 약탈한 산(4절) : 약탈을 일삼는 나라 또는 약탈한 시온 산 어디서든 여호와께서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라도(시 76:11)

Make vows to the LORD your God and fulfill them; let all the neighboring lands bring gifts to the One to be feared. (Ps. 76:11)

기도제목

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3

목요일

시편 77편

찬송가 135장

묵상노트

시인은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1절). 그는 과거에 그를 도우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환난 날에 주를 찾았으나 불안과 근심으로 심령이 상하며 주께서 그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심으로 괴로워합니다(2~4절). 시인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그가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버리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며 인지와 약속하심을 폐하고 궁핍을 그치실까 두려워하며 간구합니다(5~9절).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잘못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의 일을 되뇌이겠다고 결심합니다(10~12절). 그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13~15절). 시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였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음을 노래하며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16~20절).

환난을 당한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난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그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떠나실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은 그 자신이었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시 77:13)

Your ways, O God, are holy. What god is so great as our God?(Ps. 77:13)

• **오른손의 해 10절** :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과거

기도제목

① 언제나 기다리시는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4

금요일

시편 78편
찬송가 286장

묵상노트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1~8절).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빛으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12~16절).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내리셨지만 그들은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17~31절).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며 거짓을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여러 번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32~39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그의 백성들은 자기 양같이 그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나라들을 쫓아내시며 소유를 분배하게 하셨습니다(43~55절).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56~64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와 시온 산을 선택하시고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고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65~72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반복해서 범죄하던 어리석은 민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우리는 이전의 어리석은 죄악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 78:4)

We will not hide them from their children; we will tell the next generation the praiseworthy deeds of the LORD, his power, and the wonders he has done. (Ps. 78:4)

• **헬렌 자의 떡(25절)** :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곧 만나.

기도제목

① 죄를 따르지 않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② 2013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우선 순위는 죄를 회개하는 것

5

토요일

시편 79편

찬송가 252장

묵상노트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주의 백성들을 죽이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흐르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웃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었노라고 시인은 하나님께 한탄합니다(1~4절). 그는 하나님께 자기들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를 모르며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진노하시기를 구합니다(5~8절).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영광과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을 비웃는 이방 나라에게 복수해 주시며 갚히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기들을 주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9~10절). 시인은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이요 양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노라고 노래합니다(12절).

시인은 이방 나라들로 인해 파괴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모든 어려움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회개와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면 현실의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자신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시 79:9)

Help us, O God our Savior, for the glory of your name; deliver us and forgive our sins for your name's sake.(Ps. 79:9)

• 칠 배나 갚으소서(12절)
완전하고도 철저한 보응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언제나 주님께 먼저 회개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믿음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는 10월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바울은 술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음의 깃발을 보고 사탄은 도망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승리자에게는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1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가장 완전하신 재판장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완전하신 재판장이시다

| 찬 송 |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 본 문 | 요한복음 8:1~1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이룬으로 시작하여 줄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6 주일

7 월요일

□ 시편 80편

8 화요일

□ 시편 81편

9 수요일

□ 시편 82편

10 목요일

□ 시편 83편

11 금요일

□ 시편 84편

12 토요일

□ 시편 85편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의 끝날, 곧 큰 날(요 7:37). 성전에서 자신을 잡으려고 혈 안에 싸여있던 자들의 소동을 뒤로하고(요 7:40~52) 감람 산으로 가셨던 주님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되돌아 오셨습니다(요 8:1~2a).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습관대로 저녁에 감람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동일하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요 8:2b).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논쟁에 싸였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벌였습니다.

요 8:3~5 _____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불잡힌 여인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놓고 볼 때, 그들의 의도는 매우 악했습니다. 현장에서 불잡힌 남녀를 모두 데려와야 했음에도, 여인만 데리고 왔다는 점은 그들의 의도가 다른 데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신 22:23~24 _____

고발하는 자들

그들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요 8:6 _____

※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종교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고발할 거리를 얻으려고 여자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와 모세의 법까지 이용하는 아주 교활한 함정을 놓았습니다(요 8:5). 이것은 마귀에게서 난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언제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성취하려고 다른 이들을 음모에 빠뜨리려는 악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까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악한 마귀의 시도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들

한 여인을 고발하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 침묵하던 자들은 누구입니까?(요 8:2,9)

그들은 여인에 대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활함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찌르는 선언이 들려졌습니다.

요 8:7

신 17:7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에 나타난 반응은 고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영문 성경에는 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있는 번역입니다. 돌아간 이들은 자신들도 그 여인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죄를 드러내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데에는 망설임이 없지만, 정작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데에는 매우 관대하게 여기는 인간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 양심에 따라서 정죄의 현장을 떠나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요 8:10)

정죄 당하는 자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으로 끌려왔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 8:10 _____

오직 죄인이었던 그녀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웠던 그녀, 조금의 빛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 되었습니다.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빛이 되셨습니다.

요 8:12 _____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죄와 사망의 심판 아래에서 건짐을 받은 그녀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의해 심판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 5:14~16 / 너희는 세상의 ☐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죄 시함의 권세를 가지신 완전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세상의 재판장은 죄를 재판하고 형량을 선언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가장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요 8:11 _____

마 9:6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가장 완전하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의 5대 목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설교노트

1. 서론

본 연구는 ...

...를 통해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를 ...

7

월요일

시편 80편
찬송가 293장

묵상노트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1~3절). 그는 하나님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노하셔서 눈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을 그치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구원을 얻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4~7절). 그는 이스라엘을 주께서 애굽에서 가져다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나무는 주님께서 가꾸셔서 뿌리가 깊고 그늘이 산을 가리고 가지는 백향목 같아서 바다까지 뻗었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담을 허셔서 길을 지나는 이들이 그것을 따며 들짐승들이 상해하고 먹는지 한탄합니다(8~13절). 시인은 하나님께 다시 포도나무를 돌보셔서 불타고 멸망하는 그들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호소합니다(14~17절).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물러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주님께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18~19절).

강한 나라에 의해 황폐해진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기꾸셨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었지만 주님께서 담을 허셨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와 들짐승들이 열매를 따먹고 나무를 상하게 만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강성했으나 지금은 황폐해졌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황폐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자기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3,7,19절).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주의 백성들의 대담이시기 때문입니다.

•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17절) :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불드신 자 또는 높이신 자. 문맥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시 80:19)

Restore us, O LORD God Almighty; make your face shine upon us, that we may be saved.(Ps. 80:19)

기도제목

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 백성이여 들으라

8

화요일

시편 81편

찬송가 204장

묵상노트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와 소고와 수금과 비파로 기뻐
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고 모든 절기에 나팔을 불라고 선포합니다
(1~4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잠을 벗기고
고난 중에서 건지셨으며 응답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5~7
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
방 신에게 절하지 말며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
면 채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
문에 그들을 원악한 대로 버려두셨습니다(8~12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면 원수들을 누르고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노래합니다(13~16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간
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
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
다. 현재 자신의 필요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참된 주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시 81:8)
Hear, O my people, and I will warn you-- if you would but listen to me, O
Israel!(Ps. 81:8)

• 우렛소리의 은밀한 곳(7
절) : 하나님이 우레와 번
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시내 산에서 임
재하신 사건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9

수요일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

시편 82편
찬송가 508장

묵상노트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분이랴 말한 시인은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악인의 낮을 보려 하느냐고 책망합니다(1~2절). 그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고 권면합니다(3~4절). 악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는데, 시인은 그들이 모두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지만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5~7절).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8절).

시인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불의를 일삼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확신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그의 힘을 믿고 교만하여 모든 것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가지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나 힘은 결국 헛될 뿐입니다. 온 땅의 진정한 권세는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침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을 얻으려던 어리석은 일들을 멈추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들(1,6절)** : 고대 근동에는 통치자와 재판관에게 하늘의 왕을 대리하는 차로서 존경의 표시로 '신'이라는 호칭이 주어졌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시 82:8)
 Rise up, O God, judge the earth, for all the nations are your inheritance. (Ps. 82:8)

기도저녁

① 주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 주님

10

목요일

시편 83편

찬송가 510장

묵상노트

주의 원수들이 떠돌며 머리를 들어 주의 백성을 쳐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간계를 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침묵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1~4절). 그는 주의 원수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한다고 한탄합니다(5~8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원수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9~11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장을 그들의 소유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굴러가는 검불과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산의 불길같이 광풍으로 그들을 쫓고 폭풍으로 두렵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12~15절). 그는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며 주의 이름을 찾게 되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16~18절).

이스라엘은 주변 여러 나라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위협 앞에서 과거 사사시대에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그들이 현재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까지 이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온세상이 알게 되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시 83:18)

Let them know that you, whose name is the LORD-- that you alone are the Most High over all the earth. (Ps. 83:18)

• 룻 4:8절 : 모압과 암몬
민창 19:36~38 참조

기도제목

- 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를 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내 영혼이 여호와와 의 공정을 사모하여

시편 84편

찬송가 442장

묵상노트

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는 참새와 제비처럼 주의 집에 살며 항상 주를 찬송하기를 사모하는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 주의 장막의 사랑스러움을 찬양하며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와 의 공정을 사모하여서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1~4절). 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많은 샘과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이라 노래합니다(5~7절). 시인은 하나님께 주께서 기를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8~9절). 그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좋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셔서 그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찬양합니다(10~12절).

여호와와 의 집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에게 주님의 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유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 곳을 사모하며 머물러야 합니다. 유한하여서 결국은 썩어질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그 곳에서 살기 원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사라질 물거품에 불과하며, 믿음의 눈을 들면 그곳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악한 곳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포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 시온의 대로(5절) : 큰 길 또는 통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의미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5)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who have set their hearts on pilgrimage. (Ps. 84:5)

기도제목

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12

토요일

시편 85편

찬송가 146장

묵상노트

시인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며 주님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다고 고백합니다(1~3절). 그래서 그는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의 구원을 달라고 간구합니다(4~7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면합니다(8~9절). 그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을 노래하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을 것이라 노래합니다(10~1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선한 것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량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계속해서 불순종하던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민족이었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은 다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인생들이 주님의 인자하심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마땅한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며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시 85:7)

Show us your unfailing love, O LORD, and grant us your salvation.(Ps. 85:7)

•분노(3절) : 히브리어로
에브라. 감정의 폭발, 화,
격노, 격분

•분노(4절) : 히브리어로
카이스. 괴롭힘, 슬픔, 비탄

기도제목

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주님만을 믿게 하소서. ② **총현** 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앙로원,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Bible Panorama

성경파노라마

	이적	장소
육체적 질병치유	나병환자	갈릴리 지방
	백부장의 하인	가버니움
	베드로 장모의 열병	가버니움
	중풍병자	가버니움
	혈루증 앓는 여자	가버니움
	두 맹인	가버니움
	한 쪽 손 마른 사람	갈릴리 회당
	바디매오와 다른 한 맹인	여리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맹인	갈릴리 바다 근방
	벳새다의 맹인	벳새다
	수종병 든 사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열 명의 나병환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귀 잘린 말고	갯세마네 동산
	왕의 신하의 아들	가나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	예루살렘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적들 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이적을 행하셨다. 이적이란 단순히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로 진행되어 통상적 자연 질서를 잠시 중단하고 인간 구원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각 때에 필요한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표적이 되는 것만이 참 이적이다. 이처럼 믿음과 복음의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이적의 진의를 모르게 되면 단지 기복적 입장에서 이적을 위한 이적만을 요구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심지어 사탄의 간계에 의한 시악한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대상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확증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각 이적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특징	성구
병자를 향한 주님의 연민이 강조됨	마 8:2~3 ; 막 1:40~42 ; 눅 5:12~13
이방인의 믿음이 두드러짐	마 8:5~13 ; 눅 7:1~10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된 직후 예수님 일행을 섬김	마 8:14~15 ; 막 1:30~31 ; 눅 4:38~39
친구들과의 믿음과 우정, 열정이 강조되고 주님의 죄 사하시는 능력이 강조됨	마 9:2~7 ; 막 2:3~12 ; 눅 5:18~25
예수를 향한 여인의 간절한 심정 강조됨	마 9:20~22 ; 막 5:25~34 ; 눅 8:43~48
자신의 믿음대로 치유받음	마 9:27~31
안식일 논쟁을 일으킴	마 12:10~13 ; 막 3:1~5 ; 눅 6:6~10
끈질긴 간청으로 치유받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심	마 15:29~31 ; 막 7:31~37
치유 과정에서 예수님의 친밀한 동작이 두드러짐	마 20:29~34 ; 막 10:46~52 ; 눅 18:35~43
두 번 안수하여 고치심	막 8:22~26
바리새인의 집에서 안식일에 치유하심	눅 14:1~6
치유된 자 중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림	눅 17:11~19
원수까지도 고쳐 주심	눅 22:50~51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고쳐 주심	요 4:46~54
38년의 오래된 질병도 단숨에 고치심	요 5:1~9
나면서 된 병자도 고치심	요 9:1~41

2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너희와 나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시다

| 찬 송 |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본 문 | 요한복음 8:21~30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3 주일

14 월요일

☐ 데살로니가후서 1장

15 화요일

☐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 수요일

☐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 목요일

☐ 디모데전서 1장

18 금요일

☐ 디모데전서 2장

19 토요일

☐ 디모데전서 3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역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 8:21 _____

※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요 8:19)

혼란 가운데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자신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You are)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며 차별이 없는 존재입니다.

※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요 8:23~24)

1. _____
2. _____
3. _____

이 세상에는 자신의 출생 신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더욱 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선별된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그저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올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빌 3:4~5 _____

요 3:3,5 _____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별 다른 차별이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세상에서 난 자들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며,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될 존재일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나름대로 차이가 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나는(I am)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 예수님과 모든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요 8:23~24).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과 대조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신 예수님의 선언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네가 누구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십니까?

요 8:25 _____

요 8:26 _____

요 8:28 _____

요 8:29b _____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차별이 없이 동일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들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분이십니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요 8:27,30 _____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 요한복음 8:31,38,42,49,54 말씀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 8:59 _____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릇된 열심은 그들이 메시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다른 이들과 차별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자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개성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많은 차별이 있는 존재로 여기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차별된 존재로 인정받고자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너희와 나”, 즉 그리스도와 자신과의 사이에 가장 심각한 차별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 예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딤후 2:5

히 4:15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 ②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게 하소서.
- ③ 총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설교노트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14

월요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찬송가 336장

7
묵상노트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난을 말합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4절)라는 말씀은 그들의 당시 상황을 확실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들은 그것을 견디었습니다. 이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4절). 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영광의 소망을 보게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함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5절). 성도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성도의 영광이었습니다(12절).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도 바울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봄이 성도의 유일한 영광이요 소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10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한 가지 약속으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눈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헛된 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일 것입니다(고전 15:14~15).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어렵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이 길을 걸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 **얼굴(9절)** : 하나님은 악인들로부터 그의 얼굴을 돌리실 것이다.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임재가 떠난다는 것이다. 영원한 멸망은 주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고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살후 1:4)

Therefore, 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the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2Thes 1:4)

기도제목

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도 바울은 그들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엄리합니다(2절). 그것은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3절). 그리고 그것의 최고 정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4절) 말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12절). 성도가 미혹되고 배교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재차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5절). 성도들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지키라”(15절)라고 말하는 그것은 공격이 있다는 신호였고, 그것은 심각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말한 것이었습니다(10절).

속임수를 조심하십시오. 어떠한 속임수라도 그것을 간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에게도 들어갔습니다(눅 22:3).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는 것은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15절). 그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로 이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은 영광의 길이며, 결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1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 2:3)

Don't let anyone deceive you in any way, for (that day will not come) until the rebellion occurs and the man of lawlessness is revealed, the man doomed to destruction. (2Thes 2:3)

• 거짓 기적(9절) : 거짓 기적은 바울 시대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마술사와 치유 신을 모시는 신전은 흔했다. 황제 숭배에서 치유가 나타났다. 귀신들린 자가 나음을 얻기 위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황제를 숭배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24)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기도제목

- 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십자가만을 붙들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16

수요일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찬송가 315장

목상노트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하며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2절). 바울은 주께서 성도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5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게으르게 행했습니다(11절).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떠나라”(6절). 게으르게 행한 그 사람들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음은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었고, 그것은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무질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7절). 그 무질서는 강력하게 경고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10절). 이는 일하기 싫다면, 게으르다면 죽는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성도는 낙심하게 되었습니다(13절). 그것은 선을 행하다가 하는 낙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용기를 내어 말해야만 했습니다(14절). 사도 바울은 성도의 권면과 교제는 중요한 것이며, 그것으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은혜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권면할 때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려고 말합니다(15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증거하며 권면하며 성도를 세우십시오. 주님이 이루어십니다.

• 게으르게 행하고(6절) : 헬라 로마 귀족들은 육체 노동을 멸시했다. 그리고 주의 날이 이미 왔으며 따라서 그런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들은 회심한 것이 아닌 거짓 회심자들이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살후 3:13)

And as for you, brothers, never tire of doing what is right. (2Thes 3:13)

기도제목

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권면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17

목요일

디모데전서 1장
찬송가 150장

묵상노트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명령으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3절). 에베소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한 교회였습니다(엡 6:11).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강력하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모습들이 함께 있었습니다(3~4절). 그것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6절).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것이었지만,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7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8절). 율법이 세워진 이유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였습니다(9~10절). 율법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5절). 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고백하는 그는 자신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고, 주님의 공휟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6절). 은혜로 받은 너무나도 귀한 그 구원, 그것은 온전히 주님이 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14절). 어떤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 족보(4절) : 유대인들은 성경의 족보를 자신들의 긍지로 확대 해석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쓰인 이후에 조상의 기원을 그릇 추정하는 것이었다. 결국 족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게 하였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딤후 1:15)

Here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of whom I am the worst.(1 Tim. 1:15)

기도제목

① 죄인임을 고백하며 믿음에 파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금요일

디모데전서 2장
찬송가 144장

목상노트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2절) :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신을 배제하고 한 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황제를 대상으로 기도와 제물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황제를 대상으로 기도하고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했다. 바울은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권고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했습니다(1~2절). 그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2~4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를,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저 천국 소망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계속되었는데, 성도들을 향한 기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디모데에게 권고했습니다(8절). 또한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으로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할 것 역시 권고했습니다(9절). 여자들에 대한 권고가 남자들의 권고보다 더 자세한 이유는 그 심각성에 있었습니다(11절). 배우지 않은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전도를 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옷을 입고,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숙함은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15절). 남녀가 평등하게 사는 것이 보편화 되는 이 세대에서 이 말씀은 큰 반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불평등하다고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와 도고와 간구와 감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사 55:8).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후 2:1)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request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everyone--(1 Tim. 2:1)

기도제목

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② 2013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19

토요일

디모데전서 3장
찬송가 600장

묵상노트

교회의 일꾼을 세우도록 디모데를 권면하며, 그 일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했으며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를 세우라고(2~4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고 다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다(7절). 집사의 직분에도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울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8~9절). 여자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이어야만 했습니다(11절).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16절)라고 말하며 이 일꾼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교회로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15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조건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하십시오.

• 책망할 것이 없으며(2절)
: 감독의 직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지만 감독이 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내에 있던 이단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랬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자객들의 배대를 이룬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딤후 3:16)

Beyond all question,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He appeared in a body, was vindicated by the Spirit, was seen by angels, was preached among the nations, was believed on in the world, was taken up in glory. (1 Tim. 3:16)

기도제목

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케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의 도 (고전 1:18)

The message of the Cross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고했다. 분파를 만들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웠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문제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은 ‘십자가의 도’(The message of the Cross)였다.

1.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자신을 드러냄)

십자가의 도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지 않으며, 진노하셨다. 아무도 그 진노를 막을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 사람과 용서를 가져왔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인들, 가롯 유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작정된 자발적인 희생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러나 대속의 현장인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이기도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다. 이 승리는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었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

3. 죄인의 구원

십자가의 도는 궁극적으로 죄인의 구원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드러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칭의'를 통하여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죄의 본성으로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의 '영화'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승리를 믿고 전해야 한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능력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입술을 열어 전하자. 아멘.

*2013년 제2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3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참 자유가 있다

| 찬 송 |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 본문 | 요한복음 8:31~32

³¹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³²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0 주일

21 월요일

☐ 디모데전서 4장

22 화요일

☐ 디모데전서 5장

23 수요일

☐ 디모데전서 6장

24 목요일

☐ 디모데후서 1장

25 금요일

☐ 디모데후서 2장

26 토요일

☐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라는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에 대한 가치와 시도는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의 본문은 인간의 영혼이 자유에 이르게 되는 길을 알려 주는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내 말(my teaching)에 거하면

‘내 말’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사용되었던 중요한 선언입니다.

요 8:31 /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 □에
□ □ □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 요한복음 4:21, 5:24, 11:41, 12:48, 14:23, 15:7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예수님의 표현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 (my teaching)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교훈입니다. 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시작된 계시로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에 대한 ‘소유권’과 ‘진정한 권위’를 주장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인생들에게 전하신 그의 영원한 계시는 그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태초에 존재했던 계시였습니다.

요 1:1 _____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다’ (hold)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 15:7 _____

내 제자(my disciples)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릅니다.

요 8:31 /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가 되고

※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제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적절한 정의를 내려 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벧전 2:9

진정한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판단,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을 '실제로 걷는 자'입니다. 제자란 진실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신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마 16:24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의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요 8:32 / ☐☐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요 1:17, 14:6, 17:17)

※ 제자가 되면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됩니까?(마 13:44)

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누리는 자유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악한 권세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8:32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롭게 하리라

※ 진리가 만들어 내는 자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꿈쩍없이 종노릇하던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인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요 20:31).

오늘 다시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행동하는 제자가 되셨습니까? 진정한 제자가 되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리, 참된 복음의 의미를 맛보셨습니까?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즐겁게 만 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롬 6:22~23 _____

롬 8: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에 순종하게 하소서.
- ③ 우리 구역(팀)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4장
찬송가 540장

묵상노트

바울은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1절). 설마 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딤후전 1:20).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심에 확신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2절). 그들은 믿음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권했습니다(3절). 이들의 권고는 이 모두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이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3~4절).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7절). 그리고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12절). 가르침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소함으로 업신여김이며, 그것으로 인해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12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전념하라”(13절).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을 권하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전념하라는 표현과 함께 “가볍게 여기지 말며”(14절)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심 전력하십시오(15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은 멈출 수 없는 믿음의 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전심 전력하여 주님을 따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명하며 가르치십시오.

• **화인(2절)** : ‘화인’은 특별히 가족에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인맞다’라는 말은 이러한 배교자들의 양심이 약한 영의 소유물이었다는 의미이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딤후전 4:11)

Command and teach these things. (1 Tim. 4:11)

기도제목

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디모데의 어려움 나이가 어림에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딤후 4:12). 사도 바울은 그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차근 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1~2절)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3절) 권합니다. 과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15절). 바울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6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음으로 정죄를 받는다고(12절),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13절) 말하고 격려하고 권고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25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20절) 사도 바울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22절). 교회는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잘 다스려야만 했습니다(17절).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주신 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딤후 5:25)

In the same way, good deeds are obvious, and even those that are not cannot be hidden. (1 Tim. 5:25)

• **책망 받을 것(7절)** : 사회는 모든 성적 부정 행위를 비방했다.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딤후 5:1). 그리스도인이 부도덕한 일을 범하거나 독신의 서원을 범하는 것은 누구도 좋지 않게 보는 것이었다.

기도제목

① 많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영혼을 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23

수요일

디모데전서 6장
찬송가 349장

묵상노트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1절).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3절).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교만하다고 설명합니다(4절). 부하려 하는 자들과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서로 의지하던 믿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습니다(9절).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였습니다. 그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습니다(10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영생을 취함 때문입니다(12절).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14절). 그리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자세한 명령도 제시합니다(17~18절). 우리 모두가 이러한 권면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이며 예수님만이 대담임을 계속해서 외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선포하십시오(11절). 내가 주님을 만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 바르(3절) : '건강한' 이라는 의미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영혼 혹은 믿음의 영적 상태를 묘사할 때 자주 의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한다(마 6:22~23).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딤후 6:12)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when you made your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1 Tim. 6:12)

기도제목

① 다른 교훈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호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유서 같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12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는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딤후 4:9). 성도들의 교제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교제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말하고 이야기하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그리고 복음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는 모두 다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함께 기도했지만 그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딤후 1:5)

I have been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which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now lives in you also. (2 Tim. 1:5)

· **아시아(15절)** : 서부 소아시아의 로마의 한 주를 말한다. 거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에베소였다.

기도제목

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디모데후서 2장
찬송가 290장

목상노트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1~2절). 왜냐하면 고난 때문이었습니다(3절).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평탄한 삶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고난을 설명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고(14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후메나스와 빌레도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삼음으로 악성 종양과도 같이 믿는 자 사이에서 퍼져 나갔다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권고해야 할 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14~18절).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8절).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사' (3절)는 그것을 잘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지는 매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것이었고, 영생의 문제였으며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21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죄인임을 기억하며, 죄인임을 기억함으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언제나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동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릇(20절) : 보통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 사람(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몸) 등으로 사용되었다. 값비싼 그릇은 연회와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가장 값싼 그릇은 소모품이었다. 그릇이 부장해지면 보통은 깨뜨려 버렸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딤후 2:8)

Remember Jesus Christ, raised from the dead, descended from David. This is my gospel. (2 Tim. 2:8)

기도제목

- 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 ② 2013년 제3차 청지기훈련(10월 25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26

토요일

디모데후서 3장
찬송가 202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1절). 그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2~4절). 너무나도 구체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12~13절).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14절).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15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 다른 것,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변하지 않으며, 대신 말씀이 편파적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9절). 주님이 옳다면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면 주님이 틀린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딤후 3:14)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ed it,(2 Tim. 3:14)

• **안녀와 양보례(8절)** : 출애굽기 7:11에 나오는 애굽 요술사들의 이름이었다. 그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자 그들도 똑같이 행하며 모세를 반대했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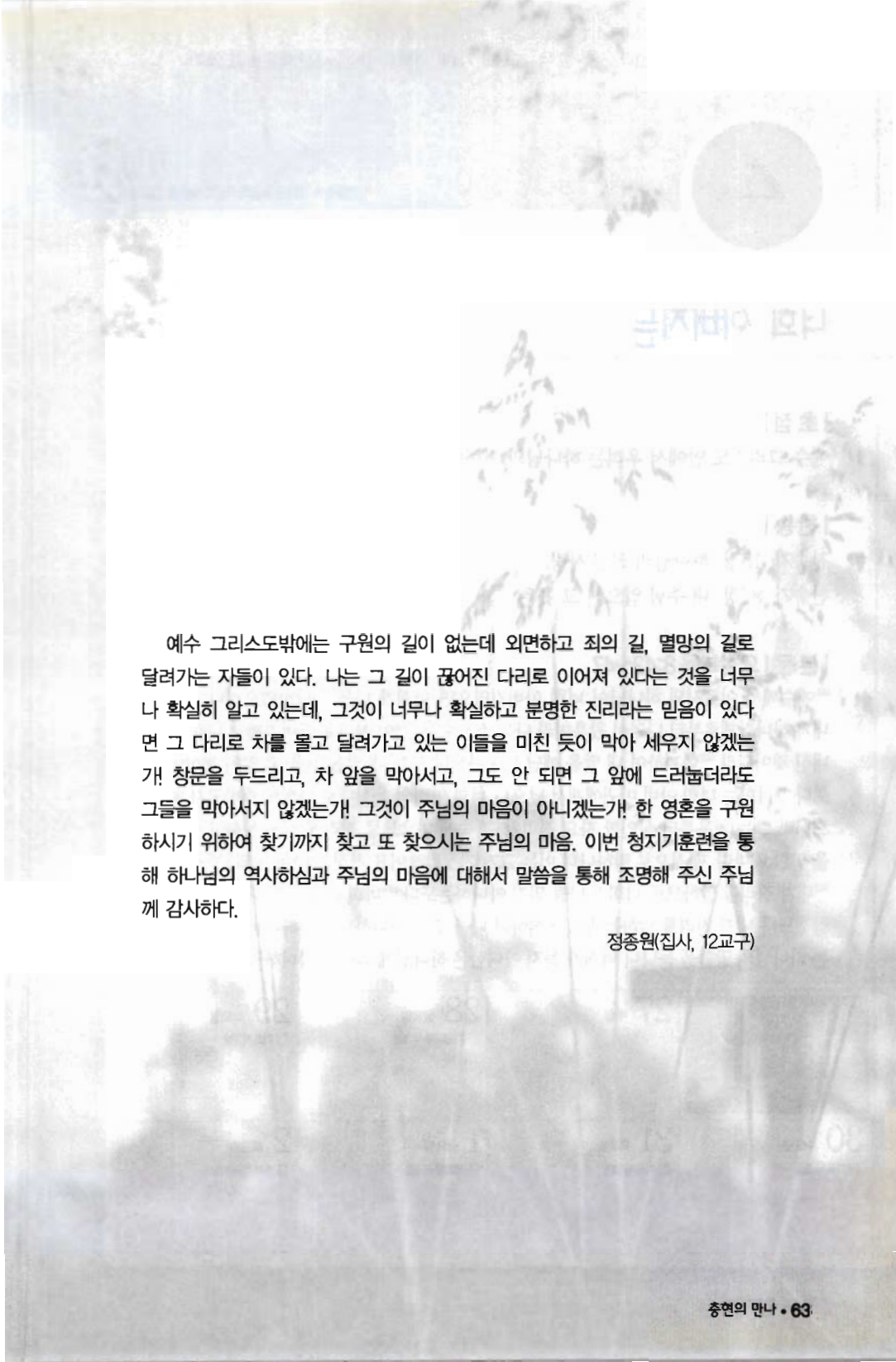
① 말씀에서 교훈과 책망과 비르케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하소서. ② 총천 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총천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말씀은 이미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니 선명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즉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차원을 초월하고 그 밖에 계시는 분이며, 결국 인간에게 길게 늘어서 있는 이 시간, 인생, 역사라는 제한을 넘어선 분이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일렬로 늘어선 이 역사를 관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이나마 상상되어 가슴이 벅찼다. 또 좋았던 것은 늘 나에게서는 성화라는 개념이 잘 와 닿지 않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화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인지 정리가 되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성화를 정리해 주시면서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죄에서 떠나라는 경고를 순종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유일한 진리를 나만 알고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거짓이며 구원받은 이들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외면하고 죄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있다. 나는 그 길이 끊어진 다리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리로 차를 몰고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미친 듯이 막아 세우지 않겠는가! 창문을 두드리고, 차 앞을 막아서고, 그도 안 되면 그 앞에 드러눕더라도 그들을 막아서지 않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기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

정종원(집사, 12교구)

4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너희 아버지는

|초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찬송|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본문|요한복음 8:42~47

⁽⁴²⁾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⁴³⁾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⁴⁴⁾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⁴⁵⁾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⁴⁶⁾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⁴⁷⁾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7 주일

28 월요일

☐ 디모데후서 4장

29 화요일

☐ 디도서 1장

30 수요일

☐ 디도서 2장

31 목요일

☐ 디도서 3장

1 금요일

☐ 빌립보서 1장

2 토요일

☐ 히브리서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자유’에 대한 교훈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요 8:33),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의 종”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요 8:34). 사실 그들은 자신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죄에게 종노릇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 8:36 _____

눅 18:11 _____

예수님께서서는 다시금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아버지”(요 8:38)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냅니다(요 8:39~40).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마귀의 음모를 행동으로 옮기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그들은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요 8:41 _____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요 8:42~43 _____

※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 3:3 _____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요 8:44 / 너희는 _____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의 선언대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 진리 편에 서지 않은 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말, 즉 간교한 말로 속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버지, 즉 거짓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 마귀의 특징을 정리해 보십시오.

요 16:2 _____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원하는 행동을 하며, 마귀처럼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증거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8:45~46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말을 책잡을 것이 없는 진리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말하는 진리를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의 위선을 말하고 그들의 거짓을 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거짓과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믿지 않았습니다.

요 1:17

유대인들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이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거나 회개함도 없는 존재입니다.

요 8:47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귀의 일을 행하며,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그래서 마귀와 죄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 1:12 _____

엡 4:21~22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 ②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 ③ 충현교회의 5대 목표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설교노트

1518년경 율곡집 글씨본

※ 〈충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임히 명하고 있습니다(1절).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것은 단단히 이것을 붙잡고 있으며 이것을 꼭 전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2절).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이런 조건이 붙여졌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것,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힘쓸 것,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복음을 권할 것을 사도 바울은 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손길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게 되는 상황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입니다(3~4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10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도 “직무를 다하라”(5절)고 권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마십시오.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익하고도 귀한 일입니다.

·말씀(2절) : 바울의 글에서 늘 그렇듯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란 예수님의 메시지, 즉 복음을 가리킨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2)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2 Tim. 4:2)

기도제목

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29

화요일

디도서 1장
찬송가 89장

묵상노트

사도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놓았습니다(5절).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레데를 설명하며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11~13절). 그렇게 하는 이유는 확실하지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은 각 성에 장로를 세울 것을 명합니다(5절). 그것을 통해서 믿음은 온전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독을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7절). 그 이유는 권면과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9절).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10~11절). 할레파라고 말하는 그들은 옳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16절). 교회 안에서의 징계와 치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입을 막고 엄히 꾸짖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놔두고 방관하면, 입을 막지 않고 엄히 꾸짖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 되는 큰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정결함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 **해탄한 이야기(14절)** : 유대인의 ‘해탄한 이야기’는 특별히 ‘화가듯’ 곧 성경 설화를 확대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들이 사는 시대를 위해 성경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 애썼던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규칙이 어떻게 특정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가를 말하면서 원래의 규칙에 수많은 판례법을 덧붙여 놓았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대(딤후 1:11)

They must be silenced, because they are ruining whole households by teaching things they ought not to teach--and that for the sake of dishonest gain.(Tit. 1:11)

기도제목

- 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권고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 ② 김동학 위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디도서 2장
찬송가 251장

묵상노트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할 것을 디도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1절). 먼저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절).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3~5절).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권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며 법사에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도록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6~8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모두가 교회의 권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권면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법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9~10절).

왜 그래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법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게 위해서(10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5~10절).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교훈을 지키기에 힘쓰십시오.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것은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이는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부디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 산중(5절) : 개역 한글판에서는 '근신'이라고 번역되었다. 자제 혹은 연단이라고 번역되는 말로, 여자에게는 정숙함을 의미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딤후 2:1)

You must teach what is in accord with sound doctrine. (Tit. 2:1)

기도제목

① 바른 교훈의 합당한 것을 말하며 함께 열심히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디도에게 군세게 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8절). 비방과 다툼 가운데 관용과 범사에 온유함을 가르치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2절). 군세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는 “우리도 전에는”이라는 구절로 그 군세게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으며, 여러 가지 적용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으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피차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권면하고 말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4~5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미쁜 것입니다(8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마치며 다시 한 번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향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이다”(15절)라고 축복하며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비방과 다툼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No!”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7절).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딤후 3:3)

At one time we too were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and enslaved by all kinds of passions and pleasures. We lived in malice and envy, being hated and hating one another. (Tit. 3:3)

• 율법교사(13절) : 개역 한 글판에서는 ‘교법사’로 번역되었다. 율법교사는 유대인 율법 전문가 혹은 학자를 의미한다. 율법교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다. 세나와 아볼로는 교육받은 유대인 엘리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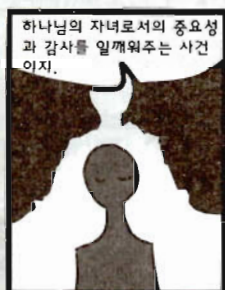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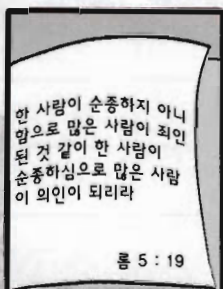
① 죄인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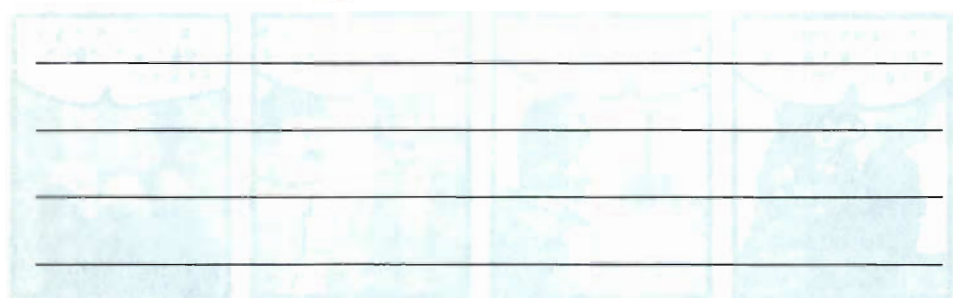
기도노트

이삭

글 · 임동현 / 그림 · 김현민







[illegible]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만나 2013년 10월

Copyright© 2013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강철형

집필진 | 한정민 하옥성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